

아이스팩도 피





1. 문장, 문단의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P. 4
2. 앞 정보와 연결하기	P. 18
3. 손을 써서 처리하기(1)	P. 34
4. 손을 써서 처리하기(2) - 번호 붙이기	P. 60
초고난도 기출 비문학 연습	P. 78
정답 및 해설	P. 85

들어가며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 보통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
2. 텍스트 경험의 양을 늘려야 한다.
3. 배경지식을 늘려야 한다.
4.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판별하여 상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1. 독해력을 키워야 한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막연히 독해력 상승을 바란다면, 수능 볼 때까지 독해력은 키워지지 않을 겁니다.

2. 텍스트 경험의 양을 늘려야 한다.

양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양만 늘린 후에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는 건 학생이 원래 재능을 갖고 있기를 바라는 일과 같습니다. 원래 잘하는데 양이 부족했던 사람, 그런 사람만 이 방법으로 성적이 오릅니다.

3. 배경지식을 늘려야 한다.

배경지식은 자연스레 지문 읽기에 관여되는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 배경지식을 따로 공부하게 되면 지문 내에서 찾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자꾸 지문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고,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배경지식을 위한 공부, 그것에 대한 과도한 믿음은 비문학 실력 향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4.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판별하여 상위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글 읽기와 수능 비문학 읽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글에는 중요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이 분명 함께 존재합니다. 그걸 선별하는 게 읽기의 주된 방법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용 지문에는 '잉여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중심 내용 파악이 아니라 모든 문제 맞히기입니다.

정보를 선별하여 일부 내용을 버리지 마세요.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진 못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다 '처리한 적'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다가라도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닌, 비문학을 잘하기 위해 법칙처럼 지켜야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세요. 비문학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1. 문장, 문단의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1. 문장, 문단의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대충 글자를 읽었으니 넘어가는, 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 우린 생각보다 글을 잘 읽지 못합니다. 이걸 능력 때문도 있지만 좋지 않은 태도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시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읽어 보세요.

올바른 태도를 갖춘 후, 이후의 방법들이 연습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이후에 모든 걸 빠르게 하면서 줄이는 겁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 위 내용을 평소처럼 읽고 이해해 보시오.

2.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위험 공동체 형성의 조건은 무엇인가?
: 다수인이 ()을 보유해야 함.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 / 보험금)을 납부한다.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 /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3. 평소의 이해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이를 모두 기록하십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秦)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4. 위 내용을 평소처럼 읽고 이해해 보시오.

5.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秦)’이 존재하던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는 []라고 할 수 있다.
진(秦)은 ‘분서갱유’를 통해 해당 시대의 혼란을 종식했다. [O / X]
‘분서갱유’는 []의 수단이다.

6. 평소의 이해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이를 모두 기록하십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7. 위 내용을 평소처럼 읽고 이해해 보시오.

8.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 일정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물체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확히 측정될 수 있다. [O / X]
- 일정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고전 역학에 따르면,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는 없다. [O / X]

9. 평소의 이해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 차이를 모두 기록하십시오.



2. 앞 정보와 연결하기

2. 앞 정보와 연결하기

“지문 내의 내용들을 서로 연결하여 내용 파악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지문 읽기를 시작했다면, 배경지식에 대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게 배경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문 내에서 정보들을 연결하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몰랐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 원래 알 수 있었던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읽은 대로 문제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 앞 정보와 연결하기

- 뒤의 내용이 앞에서 했던 말과 같은 뜻인데 다른 표현을 사용했거나
- 뒤의 내용이 앞에서 설정한 범주에 포함된다면 의도적으로 뒤의 내용을 앞 정보와 연결하면서 읽으세요.

2) 뒤에 나올 설명 기다리기

- 모르는 내용인데 지문에서 설명도 안 해준 채로 제시되어 있다면, 기다리세요.

뒤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설명을 안 해주면, 판단하세요.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고, 해당 어휘를 이후에 공부하면 됩니다.

‘뒤에 나올 설명 기다리기’는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앞 정보와 연결하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구 철학 전통에서는 앎, 즉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한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 불충분한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94. 밑줄 친 ‘우리가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 말하는 상황은 앞 정보와 연결할 때, ‘무엇이 안 된’ 상황을 말하는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인과 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재이론(災異論)이다. 한대(漢代)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재이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氣)를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失政)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재이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재이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재이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재이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역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재이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125. ㉠을 앞 정보와 연결할 때, 기존과 '예언화 경향'의 차이를 정리하십시오.

(기존의 재이론)

원인 : [재이 / 인간사]

결과 : [재이 / 인간사]

- 신하에게 [긍정적 / 부정적]으로 작용

(예언화 경향)

원인 : [재이 / 인간사]

결과 : [재이 / 인간사]

- 신하에게 [긍정적 / 부정적]으로 작용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의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한다.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리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때의 혈병을 혈전이라 한다.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6. ㉠을 앞 정보와 연결할 때, '혈전'이 앞서 제시된 '혈병'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앞서 제시된 혈병 : []에서 응고됨.

응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발생함.

- 혈전 : []에서 응고됨.

응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 발생하지 않음.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text{BIS 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geq 8(\%)$$

여기서 자기자본은 은행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단기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가중자산은 보유 자산에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위험 가중치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금융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I'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I' 협약의 한계가 드러나자 2004년에 '바젤 II'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실제 보유한 회사채가 100억 원인데 신용 위험 가중치가 20%

라면 위험가중자산에서 그 회사채는 20억 원으로 계산된다.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 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감독 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최근에는 '바젤 III'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또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 최소 6%가 되게 보완하여 자기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 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151. '바젤 I ~ III'의 내용을 머리에 효과적으로 넣기 위해 손으로 써서 정리하십시오.

4. 손을 써서 처리하기(2) - 번호 붙이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멈춰 있는 흰 공에 빨간 공이 부딪쳐 흰 공이 움직였다고 하자. 흰 공은 빨간 공이 흰 공에 부딪친 사건과 흰 공이 움직인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하고,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이어져 나타나야 하며, 원인과 결과 사이에 '항상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적 결합이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이 움직여 부딪친다면, 같은 식으로 공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드는 위 사례와 같이 흰 공이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오직 자유 의지를 가진 행위자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05. 윗글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206. 번호 붙인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에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렸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실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이 맞서는 등 세종 대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문종 대에 이르러 『고려사』 편찬이 완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經書)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집현전 학자들과의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 갔다.

207. 윗글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_1 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_2 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_1 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208. 윗글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209. 번호 붙인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학에서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정의하고, 실업이 증가하면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이 적어지는 등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경제학에서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실업을 크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등으로 분류하고 그 해결책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210. 윗글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211. 번호 붙인 것들의 공통점을 쓰고, 차이점이 유발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로 진술한 진술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진술과 서류인 전문서류가 있다.

229. 윗글의 1문단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230. 윗글의 4문단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디지털 이미지 압축 기술에는 무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이 있다. 무손실 압축은 압축 과정에서 데이터를 손실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압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압축 효율은 떨어지지만,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이 가능하다. 반면 손실 압축은 중복되거나 필요치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여 원본과 동일한 이미지로 복원하기는 어렵지만, 무손실 압축에 비해 수 배에서 수천 배 이상의 높은 압축 효율을 얻을 수 있어 보편적인 압축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JPEG는 손실 압축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디지털 이미지 파일 형식이다. JPEG 형식의 압축은 크게 전처리, DCT, 양자화,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

231. 윗글의 1문단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232. JPEG 형식의 압축은 위에서 번호 붙인 것 중 []번에 해당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가 법률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및 법률 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에 따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법률 행위와 관련된 관습이 없고, 당사자가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 규정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 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233. 윗글에서 번호 붙이기를 수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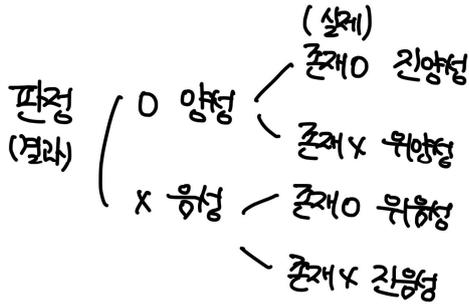
234. 윗글에서 번호 붙인 것 중 상황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몇 번인가?

235. 윗글에서 번호 붙인 것 중 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몇 번과 몇 번인가?

[정답 및 해설]

- 2) 같은 위험, 보험료, 보험금 위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보험이 성립된다. 개인만 조재하고 위험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 5) 전국 시대, X, 사상 통제 혼란의 종식 이후에 전국 시대가 끝났을 수도, 아닐 수도 있기에 존재하던 시대 혹은 그 이전의 시대라고 했다. 그리고 전국 시대의 혼란은 아마도 사상과 관련된 것이었을 확률이 높다. 분서갱유를 통한 사상 통제 그 자체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건 아니다.
- 8) X, 초기 운동 상태, O 초기 운동 상태를 모르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를 측정하는건 불가능하다.
- 11) 유사성, 추가적 특성
- 14) 시기, 이기론, 치인, 이기론, 이, 기
- 17) X, O
- 20) 가해자, 피해자 /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배분
- 23) 점유, 소유, O 주인일 수도(점유하는 사람 = 소유하는 사람), 아닐 수도 있다. 사실상의 지배는 하고 있으나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6)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한다는 점, O, O
- 29) 비섬유소, 효소, 포도당, 사람의 체내에서 합성
- 32) 계약, 청약, 승낙, O
- 35) 현실, 실제, 실제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마치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제 세계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 즉 이미지는 개념은 '감각에 의해 지각한 것, 현실 세계라는 대상보다는 실제 세계라는 개념과 더 관련이 있다.
- 38) 세포에 필요한 물질 공급, 노폐물 제거 / 혈관 벽 / O 이후 나오는 '앞 정보와의 연결'도 포함되어 있다.
- 41) X, 매개자, 매개자
- 44) 낮고, 높다 / 높고, 높아야
- 47) 경기, 경제, 경제 경제와 경기를 지문 내에서 구별하는 읽기가 필요했다.
- 50) 칼로리, X
- 53) X, 권리, 의무
- 56) 덕, O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덕'이다. 그리고 인간 고유의 기능이 이성의 활동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국 이성의 활동 = 덕, 행복에 이르기 위해 '덕'에 따라야 함.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의 활동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 59) 개인과 금융 기관의 거래, 금리
- 62) O, O 근대 이전에는 과학적 세계관이 없었다.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는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 이상으로 보았고, 이후에는 '국한' 즉, 범위를 축소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 65) X, 유사성, 차별성
- 68) 산소, 이산화탄소 / 폐의 혈액, 심장 / 물질대사, 심장, 폐 이후 제시되는 '손을 써서 처리하기'의 예고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다.

- 71) 시료 표면의 높낮이, X, X, O
- 74) X, 사회적 이익과 같아질 때
- 77) 반대되는, 부정적, 부정적, 차이, 동일성
- 80) 최대, X, ⊕ : 출자자, ⊖ : 주식
- 83) 길다, 압축 강도, 인장 강도
- 86) O, X 르네상스 이전에도 자연적 원근법은 사용되었다. '그런데'라는 전환의 표지 이후, '눈에 보이는 장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려 했다는 내용을 통해 자연적 원근법은 정확하게 재현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9) 낮아지거나, 커지면 / 높아지거나, 작아지면
- 92) 존재자, 존재자, 존재 / 존재자 / O 우리가 아는 '존재', '존재자'의 뜻과는 다른,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한 파악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존재 : 존재자를 존재자답게 만들어주는 것 / 존재자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인간, 예술의 작가, 예술품 포함)
- 94) 정당화가 안 된 상황
- 95) 채무, 급부
- 96) 본계약의 성립 '급부'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무'를 가진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97) 지질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어 지질도 없지만 바이러스 중 일부는 캡시드 외부에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여 있다. 다양한 병원체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이므로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지질이다.
- 98) 바이러스 일반적인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없으므로 지질이 없고,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피막으로 덮여 있기에 그렇다.
- 99) ⊕ :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된다고 가정하면, 갑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 :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가정하면, 갑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 100) 추위, 강물이 얼었다 / '때문에'(인과 관계 그 자체)
- 101) 근일점
- 102) 반비례 '필요한 사이클'은 '몇 번 발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다. 애초에 증폭될 양이 많아 한 번에 발색이 많이 된다면, 당연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이클의 수 즉, 발색의 횟수는 적어질 것이다.
- 103) 높은, 낮은
- 104) 맞다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바나나의 사라짐)가 이후의 모든 지점에 전달되었다.
- 105) 아니다 교차에서 도입된 표지(그림자의 일그러짐)가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전달되지 않았다.
- 106) 교차에서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하는 과정
- 107) 사회 태만
- 108)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 109) ⊕ : 정립, 반정립 ⊖ : 중합
- 110) 이념, 현실
- 111) 군주권이 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 / 군주의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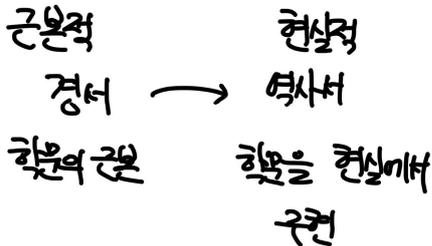


141)

판정

	O	X
존재 O	진양형	위양형
X	위음형	진음형

142) 답 민감도 : 존재 O - 양성 판정 비율(진양성 ↑ 위음성 ↓), 특이도 : 존재 X - 음성 판정 비율(진음성 ↑, 위양성 ↓)



143)

- 144) 답 수입 > 수출 - 적자 / 수입 < 수출 - 흑자
- 145) 답 금 1온스 : 35달러 / 1달러 : 1000원 / 금 1온스 : 35000원(35달러 구한 후에만 금 교환 가능)
- 146) 답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음 / 0000 또는 1000이 0을 나타내게 되어 일관성, 저장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짐.
- 147) 답 1000 ㉠ 왼쪽에 제시된 앞 문단에 '7'이 '0111'이라고 나온다. 이 중 '0'은 양수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1'로 시작하게끔 쓰면 될 것이고, '1'의 보수법은 '합쳐서 1이 되게 하는 수를 쪽 늘어 놓으면 되는 것이므로 '111'에 각각 더해야 하는 수들은 모두 '0'일 것이다. 그래서 음수인 '1'과 '000'을 합친 '1000'이 답이다.
- 148) 답 해결한 것 : 오버플로를 처리하는 별도의 규칙이 없음 / 해결하지 못한 것 : 계산값이 0000 또는 1111인 경우 0을 나타내는 문제(숫자는 바뀌었으나, 서로 다른 두 데이터가 0이라는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경우)
- 149) 답 $3+(-7) = 011+(1001) = 1100$ ㉠ 2의 보수법은 1의 보수법 내용을 필요로 한다. 1의 보수를 구한 후에 '1'을 마지막 자리에 더해주

면 된다.

150) 답 그 명제가 참 or 거짓이라는 '가장 강한 믿음 갖게 됨. / 기존의 믿음 -> 임의의 명제가 참 or 거짓이라는 조건하에 기존에 믿었던 명제에 대한 믿음으로 바뀜.

기본 내용 → 8% 이상이어야 함 (BIS 바뀜)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권한 채무)
 위험가중 자산 → 전체 (0%)
 리스크 (100%)

비율 I

위험가중 자산 - 신용위험 + 시장 위험
 전체 0% (승인카, 은행이 선택가능 (특정 방법))
 리스크 100%

비율 II

위험가중 자산 - 신용위험 + 리스크비율 8% 이상 가능
 - 자산의 유형, 신용도 모두 고려
 - 표준 위험 + 내부 위험 (측정 방법)
 전체 0-150% (승인카, 은행이 선택가능 (비율 I 시장 위험))
 리스크 20-150%
 유형 신용도 (비율 I로 공해서 반영)

비율 III

151)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단기권한 채무) 리스크
 단축은 6% 이상



